■ 수능 가채점 해보니 올해도 '실력 광주'

사립 강세 여전, 공립도 약진

올해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수능 가채점 결과, 사립고교들의 강세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올초부터 '공립교육 부활'을 외쳐온 국·공립 고교들의 수능 성적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실력 광주'의 명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광주지역 33개 고교 진학실장들이 분석한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26개 사립고교 가운데 'SKY 대학'지원이 가능한 상위권(인문 470점, 자연 450점 이상)학생은 모두 281명으로, 전년 221명보다 60명이 증가했다.

국·공립 7개 고교의 상위권 학생도 21명으로, 전년(16명)보다 5명이 늘었다. 수능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가채점에서 상위권의 성적은 인문 460점, 자연계 430점대 후반 이상으로 집계됐었다. 또한 서울대 수시 특기자·지역균형 선발 1차 전형에서도 전대사대부고가 4명의 합격자를 내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가채점 결과지만, 광주지역 사립고교들의 성적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사립명문인 A고교는 상위권 학생이 전년 15명보다 5명이 증가한 20명, 광주 B여고도 5명이 증가한 2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그동안 중학교 졸업자 중 우수성적 입학생이 적었던 탓에 약세를 보여왔던 일부 사립고교 등에서도 10명 이상의 상위권 학생을 배출하는 등 전체 사립고교에서 '동반 상승' 현상을 보였다.

다만 신흥 명문 사립고로 떠오른 모 고교는 올해 학교내 신종플루 집단 감염 등으로 두달여간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위권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학교 진학실장은 "우수 학생들이 많아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능을 두달여 앞두고 발생한 신종플루 탓에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다"면서 "다른 고교와 비교해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고득점을 기대했던 탓에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둡다"고 말했다.

사립고교의 강세와 함께 광주지역 국·공립 고교 학생들의 성적 상승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수리 '나'의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남자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리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어오던 여자고교의 성적 향상 폭이 컸다.

공립인 A여고는 지난해 가채점에선 서울대 정시 지원이 가능한 고득점자가 단 한명도 없었으나, 올해엔 3명이나 나왔다.

마재일 대광여고 진학실장은 "쉬운 수능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적이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표준점수 등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지난 5년간 이어온 '실력 광주'의 명성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소방공무원 '소송 대란'

지자체 수백억원 '불똥'

"초과근무수당 지급" 광주·전남 1,540명 참여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광주·전남 소방관 2명 중 1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광주·전남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관련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총 1천540명(광주 530명, 전남 1천10명)의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일 현재 광주·전남에서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2천740명)의 56.2% 수준으로, 지역 소방관 2명 중 1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소방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360~240시간) 가운데 정규 근무를 제외한 195시간 중 광주는 75시간, 전남은 60~70시간만 초과수당을 받았다"며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지난 2006년 12월부터 3년간 발생한 미지급분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수백억원대의 '소송대란'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방관들의 1인당 청구액이 적게는 400만~800만원, 많게는 1천500만~2천만원으로, 총 청구액 규모는 150억~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의 소방공무원들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준비 중인 곳은 광주·전남을 비롯, 서울, 대구, 경기, 충북 등 10개에 달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960〉 김종두

연쇄살인범 정남규 구치소서 목매 자살

부녀자를 연쇄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정남규(40)가 21일 오전 6시35분께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을 근무자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22일 오전 2시35분께 숨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은 거실내 105㎝ 높이의 TV 받침대에 쓰레기 비닐봉투를 꼬아서 맨 100㎝ 정도 길이의 끈으로 목을 맸으며 발견 즉시 구치소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의 개인 노트에는 '현재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같은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에 따라 정은 최근 사형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보도 등을 접하고 사형 집행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했다.

정은 2004년 1월부터 2년여간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길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총 25건의 강도상해 및 살인 행각을 벌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7년 4월 사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푸른길에 '가족나무' 심어요" (사)광주푸른길운동본부 주최로 21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호아파트 옆 푸른길공원에서 열린 '2009 가을 내 나무심기' 행사에서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가족나무'를 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경찰청 경감 자택서 자살

"아이들 부탁한다" 유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자신의 집 앞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모 아파트 14층 계단 난간에서 광주경찰청 김모(41) 경감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생(39)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동생은 경찰에서 "(형이) 휴대전화로 '아이들을 잘 챙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아파트에 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김 경감의 집에서는 숨지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아이들을 부탁한다. 모두 용서하길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 경감은 지난 199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뒤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경감까지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김 경감이 최근 "가정불화 문제 등으로 힘들어 했다"는 동료와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김형호기자 golee@

"멧돼지 잡아라" 보성서 수렵대회

전국서 엽사 300여명 참가

120㎏ 짜리 등 11마리 포획

"수렵장 개설로는 부족하다. 전국단위 수렵대회를 통해 멧돼지를 포획해야 한다."

광주·전남에서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보성군에서 '제6회 전국수렵대회'가 열렸다.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번 수렵대회에는 전국에서 온 엽사 300여명이 참가, 유해조수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 꿩 등을 포획했다.

이번 수렵대회에서 엽사들은 최대 120㎏ 짜리를 포함한 11마리의 멧돼지와 최대 20㎏ 짜리 고니 5마리를 붙잡았다. 꿩 80마리도 함께 포획했다.

박복규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큰 보성에서 대회를 열게 됐다"며 "수렵대회를 통해 유해 조수를 무더기 포획함으로써 농가 피해도 줄이고, 수렵인들의 기량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식당에 공사장에…광주 도심 멧돼지 '소동'

광주에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나타나 119구조대가 출동해 포획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일 오후 5시께 광산구 운남동 마지초등학교 인근 식당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광산소방서 119구조대는 그물망을 이용해 식당 내 부엌에 갇혀 있던 생후 4개월로 추정되는 멧돼지를 포획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0분께는 광산구 서창교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멧돼지가 출몰해 구조대에 의해 포획됐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멧돼지가 산에서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내려오는 것 같다"며 "피해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해경, 조난선원 4명 구조

21일 오전 6시40분께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북서쪽 해상에서 부산선적 110t급 어획물운반선 K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여수해경은 무선통신을 통해 K호의 조난신호를 받고 즉시 경비함정을 급파, 선장 정모(70)씨 등 선원 4명을 구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법무차관이 내 친구야" 경찰 멱살

쌍나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장 동료가 경찰에 연행되려 하자 "내 친구가 법무부 차관"이라며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김모(52)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경찰이 직장 동료 A(여·36)씨를 연행하려 하자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김씨는 음주사고를 낸 뒤 사무실에 찾아온 A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내 친구가 법무부 차관인데, 가만 두지 않겠다"며 한바탕 소동.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